

방글라데시 원조 수원액 감소 및 Good Governance 부각

I. 국제사회의 對방글라데시 원조액 감소

□ 방글라데시 수원기관인 경제협력청(ERD: Economic Relations Division)은 2004 회계년도(2003.7~2004.6)중 선진 원조국의 방글라데시 대상 원조액이 이례적으로 감소, 10억 3천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발표함.

- ERD에 따르면 총 수원액 10.3억 달러 가운데 6.9억 달러(67%)는 차관이고 3.4억 달러(33%)는 무상원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같은 수원 규모는 지난 25년의 수원역사 중 가장 적은 수준임. 방글라데시의 수원액은 지난 89년 18억 달러를 최고로, 이후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년 평균 1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 이 같은 원조액(Disbursement)은 당초 원조국의 약속액(Commitment)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2004년의 경우 공여 약속액이 17.2억 달러

였으나 이 가운데 6.7억 달러는 미집행되었는 바, 이는 방글라데시의 비능률적이고 부패한 행정에 기인하는 바가 큼. 즉 선진 원조기관들은 방글라데시 정부관리들의 부패를 경험하며 개발사업 지원시 더욱 투명하고도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관행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을 야기함.

- 국별 원조규모(집행액)를 보면, 세계은행이 2.2억 달러로 방글라데시 최대의 공여자이며 ADB 1.7억 달러, 영국 93백만 달러, 일본 79백만 달러, 네델란드 40백만 달러, UNDP등 유엔기관 36백만 달러, 독일 26백만 달러 등임.

II. 일본의 거버넌스 관련 이슈 공식 제기

□ 한편, 일본 정부는 방글라데시 대상 원조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거버넌스 관련 이슈(행정의 비효율성, 부패, 정치연루 등)를 공식 제기하였음. 그간 서방 원조국들이 원조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거버넌스 이슈(인권문제 포함)를 제기, 방글라데시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데 반하여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하여 왔음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제기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일본의 원조사업(ODA) 예산이 축소되는 가운데 원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은 방글라데시의 부패한 관료들이 입찰 조작 등을 통하여 무자격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결과적으로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를 야기하는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일본은 방글라데시 최대의 원조 공여국으로, 1972년 이후 총 105.4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공여하여 왔음(이 가운데 차관이 56억 달러, 무상 45억 달러, 기술협력 4.4억 달러임). 일본 정부는 투입자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새로운 원조정책을 구상중이며 주로, 민간부분 활성화, 거버넌스 개선, 교통, 전력 및 농업부문 인프라 구축, 인간 안전보장을 위한 재해원조 및 보건 위생, 기초교육, 환경부문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상기 개발사업의 입찰과 관련한 정부의 부패는 사전에 특정 입찰자와 공무원(정치인)이 연계하여 개발 사업을 수주받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최근 사례는 아래와 같음.

- 방글라데시 정부(내각 조달물자 위원회)는 6.18 방글라데시 Panchuganj 지역 복합 화력 발전소(발전전력 90메가와트) 사업시행자로 사업경험이 없는 중국계 Harbin Power Engineering사를 선정토록 승인한 바 있음.
- 동 발전소 설립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은 그간 6차례나 있었으나 방글라데시 전력청(PDB: Power Development Board)은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입찰을 지연, 선진국의 유력 입찰자들이 스스로 입찰 참가를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지난 4월의 7차 입찰에서는 중국계 회사만이 응찰하게 됨.
- 동 중국계 회사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조달 규정상 사업수행 경력(최소 10년 이상) 등에서 자격 미달임에도 정부(조달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계약 체결(사업자 선정) 승인을 결정함.
- 이러한 결과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유력자가 개발사업을 빌미로 사업시행자와 부패고리를 형성, 원조 자금을 유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등 방글라데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있음.

[자료: 주방글라데시 대사관]

Ⅲ. 방글라데시 거버넌스 관련 최근 사례